

光州日報 창사 54주년 제언

‘디지털 디바이드’를 없애자

(Digital divide : 정보 격차)

“할아버지 더블 클릭, 엔터 키를 눌러야 한답니다나요?”

광주 동구 한 사회복지관. 방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로 가득하다. 앞에서는 손녀 만한 강사가 연신 머리를 긁적이는 노인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 이씨 할아버지(65)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달 안에 서울 사는 손주 녀석하고 채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저소득·저학력층 ‘정보화 소외’ 대물림 “아날로그 세대 위한 프로그램 절실”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보급률, 온라인 주식거래 세계 1위, MP3음악과 파일 다운 세계 1위, 가구당 PC보급률 세계 1위.

지난 98년 케이블 모뎀으로 시작한 한국 인터넷 서비스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급속한 정보화 추세는 산업화 이상으로 기존 질서를 뿌리째 흔들 뿐만 아니라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초강국이라는 화려함 뒤에는 정보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불균형(격차)을 말한다. 개인 간의 관계는 물론 가정·기업·국가·지역별로 따라 격차는 심화된다.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교육정도와 소득 수준·거주지·연령 등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또한 같은 학력과 교육 등 동일한 조건을 가진 경우라도 정보 이용 능력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정보문화원이 올 초 발표한 ‘정

보격차해소 백서’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만 6세 이상 국민 72.8%인 3천301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 내세울 만한 수치이다. **〈관련기사 4·5면〉**

그러나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41%에 불과하며, 월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의 이용률은 28.5%로 월 가구 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90.1%)의 3분의 1도 못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연령별 격차로 6~19세의 이용률은 97.8%로 50대 이상 보다 무려 3배 이상 높다.

디지털 디바이드는 속성상 정보선도계층과 정보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키고, 전통적인 관습·문화 체계마저 변화시켜 사

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물론 영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수년 전부터 정보 인프라 보급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정보통신전문가들은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격차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격차 해소는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노약자와 빈곤층·장애인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능력이 떨어진 계층을 위해서는 기기를 사람에게 맞춰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처럼 전문화부장관은 “이제 개인적 디지털 디바이드로 인한 정보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문화에 취약한 기성세대인 아날로그 세대가 쉽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재희기자 chae@kwangju.co.kr】



최은석(65·화순군 화순읍·가운데)씨가 막내 손녀 서윤(7)양을 무릎에 앉힌 채, 만화 ‘마법천자문’을 인터넷으로 기적들과 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명숙씨 첫 여성 총리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오늘부터 업무



영파던 국정운영이 정상을 되찾게 됐다.

이날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

에 임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른 자유투표에 맡겼고,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각각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다수로 가결했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2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82, 반대 77, 기권 3,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관련기사 3면〉**

한 총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이자 고건, 이혜찬 전 총리에 이어 참여정부 3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신임 한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1절 골프파문’으로 이혜찬 전 총리가 지난달 15일 사퇴한 뒤 한 달여 동안 총리대행 체제로 운

박광태·박준영 후보 독주

(광주시장)

(전남지사)

광주 정당지지도 민주 36%-우리 33% 점진

광주일보·KBC·한국갤럽
‘지방선거 6차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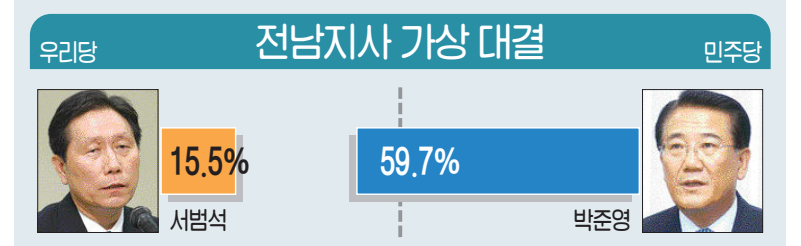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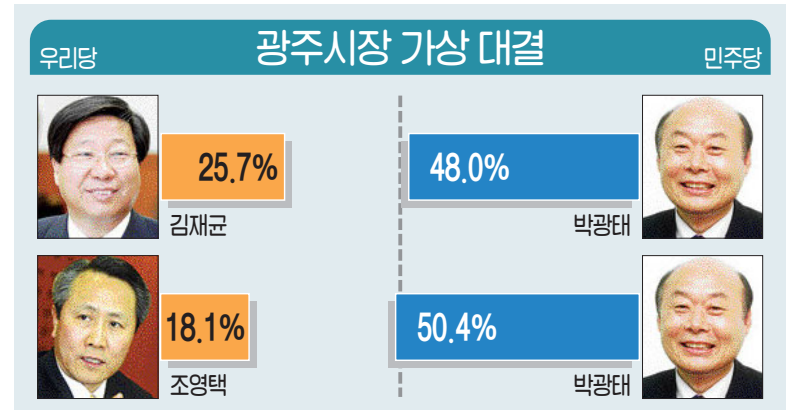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 시·도지사 후보 선호도에 대한 현직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각각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광주의 경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이번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반면, 전남에선 민주당이 배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기 시·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광주지역 유권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전남 유권자들은 농업·농촌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기초단체장인 현 시장·군수·구청장의 연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

광주일보는 KBC와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6~17일 광주·전남 만 19세 이상 유권자 1천26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제6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창사특집 32면 발행



▶해설 6·7면 ▶조사결과 표 인터넷광주일보(www.kwangju.co.kr)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조사 결과 광주시장 예비후보 선호도에서는 박광태 광주시장이 42.4%를 얻어 다른 후보들을 30%포인트 가까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전 광주 북구청장은 13.2%를

기록했고 오병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달 보다 4%포인트 상승한 8.8%를 얻었다.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은 4.9%, 지난 11일 출마를 선언한 진선수 한나라당 전 부대변인은 0.7%였다. **〈2편으로 계속〉**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南道人心
 작은 일로 사랑을 전하는 문명

한국정보문화원

www.kwangju.co.kr